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2. 건명 :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
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불임참조
4. 검토의견 : 불임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3월 17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함(안 제5조의2).
- 나. 우수학원의 지정·육성권한을 “교육감 또는 교육장”으로 개정함(안 제14조)

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의 2로
 -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의 경우 05:00부터 22:00시, 중학생의 경우 05:00부터 23:00까지, 고등학생의 경우 05:00부터 24:00까지로 하고,
 -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, 24:00부터 익일 04: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되,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14조중 “교육감”을 “교육감 또는 교육장”으로 개정함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,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사항으로,
-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는 공교육의 활성화 및 학생의 건강권 확보 미흡이 우려되어 중·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당초 24시까지에서 중학생은 23시까지, 고등학생은 24시까지로 수정의결 하였으며,
-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시·도 교육청에,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우리 의회에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 등을 위하여

학원의 교습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.

-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, 학원의 심야 교습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, 건강권, 수면권의 충분한 확보 미흡 및 학교수업의 소극적 참여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 할 수 있겠으나,

교습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학부모의 교육권, 학생의 학습권, 학원운영자의 영업권 등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며,

이로 인해 고액 개인과외가 음성적으로 확산되어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,

-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하여는 사교육비 지출 억제 및 공교육의 정상화,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의 보호를 위하여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,

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등 학부모, 학원 운영자, 시민단체 등 각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으며 특히, 초등학생의 경우 오전 5시에 학원수업 참여를 위해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등 다소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도 예견되므로,

교습시간 제한에 관하여는 관련단체나 영향력 있는 자의 부분적인 의견반영 보다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타 시·도의 사례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